

태권도, 2028년 LA 패럴림픽서도 '정식 종목' ... 3회 연속

태권도가 패럴림픽 3개 대회 연속 정식종목이 됐다.

지난 31일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전날 "IPC 집행위원회에서 태권도를 포함한 22개 스포츠를 2028년 LA 패럴림픽 정식종목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IPC 집행위원회에서 태권도는 처음 2020 도쿄패럴림픽 정식종목으로 선택됐다. 이후 2021년 11월, 태권도는 2024 파리패럴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특히 남녀 체급이 기존 각 3개 체급에서 각 5개 체급으로 늘어났다. 참가 선수 규모도 72명에서 120명으로 확대됐다.

이어 LA패럴림픽까지 3개 대회 연속 정식종목으로



▲ 일본에서 열린 2020 도쿄패럴림픽 태권도 경기 모습. 사진=세계태권도연맹(WT) 홈페이지

인정받았다. LA패럴림픽에서의 태권도 체급 수와 참가 선수 규모는 곧 확정될 예정이다.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는 "태권도가 처음 데뷔한 2020 도쿄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끊임없이 경사가 이어진다."며 "장애인 태권도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LA 패럴림픽 정식 종목은 태권도를 포함해 육상, 양궁, 사이클, 승마, 유도, 사격, 수영, 탁구, 트라이애슬론, 휠체어 농구, 휠체어 펜싱, 휠체어 럭비, 휠체어 테니스 등 22개 종목이 확정됐다.

한편, 올림픽에서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대회 때 처음 정식종목으로 치러진 이후 2028 LA 대회까지 8회 연속 정식 종목으로 열린다.

MLB, 3월 30일 시즌 개막

메이저리그(MLB)가 오는 3월 30일, 모든 팀이 2023시즌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 1968년 이후 처음으로 전 구단이 같은 날 개막전을 치르는 것이다. 시즌 종료일은 10월 2일이다.

MLB 사무국은 2023시즌 정규리그 일정을 확정해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L 소속 팀과 NL 소속 팀이 맞붙는 '인터리그' 경기 수는 지난해 총 300경기(팀당 20경기)에서 총 690경기(팀당 46경기)로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다른 리그 소속 5, 6개 팀을 상대로만 인터리그 경기를 치렀지만 새 시즌에는 15개 구단 전부와 맞붙게 되면서 생긴 변화다.

MLB 사무국과 선수 노동조합은 지난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지구의 팀과만 주로 경기하기보다



▲ MLB 2023시즌 인터리그 경기수가 690경기로 늘었다. 사진=mlb.com

모든 팀과 맞붙어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자' 는 데 뜻을 모았다.

김하성의 소속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LA 다저스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최지만과 배지환 그리고 심준석이 속한 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신시내티 레즈와 개막전을 벌인다.

야구 세계화를 위한 '해외 시리즈' 도 계속된다. 김하성(28)의 소속 팀인 샌디에이고는 4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멕시코시티에서 샌프란시스코와 2연전을 치르고, 세인트루이스와 시카고 컵스는 6월 25, 26일 영국 런던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올스타전은 7월 12일 시애틀 안방구장 T모바일파크에서 열린다.

제임스, 시즌 첫 트리플 더블

최다 득점 신기록 눈앞



▲ 최다 득점 기록 경신을 앞둔 르브론 제임스. 사진=연합뉴스

르브론 제임스(39·LA 레이커스)가 이번 시즌 첫 트리플 더블과 함께 미국프로농구(NBA) 통산 어시스트 4위로 올라섰다. NBA 통산 최다 득점 기록 경신을 앞두고 있는 제임스는 이 부문 기록 보유자인 카림 압둘자바(76)와의 격차를 두 자릿수로 좁혔다.

제임스는 지난 31일 뉴욕과의 2022~2023시즌 NBA 정규리그 방문경기에서 28득점, 10리바운드, 11어시스트를 기록하는 트리플 더블 활약으로 팀의 129-123 승리를 이끌었다.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모두 팀 내 최다였다.

이날 통산 어시스트를 1만338개로 늘린 제임스는 이 부문 역대 4위가 됐다. NBA 통산 어시스트 1위는 유타에서 뛰었던 전설적인 가드 존 스톡턴(1만5806개)이다. 통산 어시스트 역대 톱5 가운데 가드가 아닌 선수는 제임스(포워드)뿐이다.

이날 통산 득점을 3만8,299점까지 끌어올린 제임스는 NBA 역대 최다 점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압둘자바의 3만8387점에 88점 차로 다가섰다. 제임스는 "농구를 하면서 기록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기할 때마다 득점과 리바운드, 어시스트, 수비에서 상대 팀에 위협적인 선수가 되려고 노력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번 시즌 제임스는 이날 현재 경기당 평균 30.2점을 넣고 있다. 앞으로 경기에서 평균 득점을 유지한다면 2월 7일 열리는 오클라호마 시티전에서 압둘자바의 기록을 넘어설게 된다.



EXPO LENDING
Gale Financial DBA Expo Lending
Equal Housing Lender DRE: #02064448 NMLS: #1721928





Sean Kim
Senior Loan Agent



Reverse Mortgage • Line of Credit - Low Cost

신속한 융자 필요하신 분! 융자 상담 도와드립니다. 타주 융자 가능

- No Income Program - Credit 640부터, 20% down 가능
- Conventional Loan • VA/FHA Loan • 재융자
- 투자용 주택 스페셜 프로그램

NMLS #343413 **213.591.2535**
seanhansu@gmail.com
18725 E. Gale Ave. Ste. 100, City of Industry, CA 91748